

#### 46.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1-5)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9-13)